

1. 우리 수출 향방의 주요 동인 점검 및 시사점

(조사국 국제무역팀·중국경제팀)

1. 금년 3/4분기중 우리 통관수출금액은 전분기보다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나 실질GDP재화수출물량은 전기대비 0.6% 감소하였다. 여기에는 일시적 요인의 영향도 있었지만 구조적 요인의 영향이 예상보다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수출 흐름을 좌우할 주요 동인들을 은 서로 복잡하게 얽여있어 각각을 명확하게 구별하기는 어려우나, 큰 틀에서 ①AI 발전, ②중국과의 경쟁 심화, 그리고 ③美 보호무역 강화로 구분할 수 있다.

2. 이러한 변화의 힘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수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지금으로서는 그 크기와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내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트럼프노믹스 2.0하면서 보호무역이 강화되면 우리 무역환경에 미쳐 예상치 못했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이처럼 우리 수출을 둘러싼 교역환경의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이기에, 우리 수출 흐름을 좌우하고 있는 주요 동인들이 향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최근 우리 수출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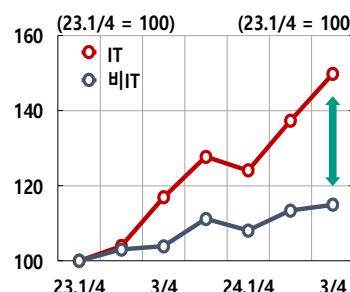
3. 최근 우리 수출은 AI산업 발전과 중국 과잉생산의 영향으로 과거와는 달리 품목별로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IT수출의 경우 HBM이 빅테크 기업들의 견조한 AI 인프라 투자에 힘입어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나 공급이 늘어나기는 어려워 수출 금액이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DDR4의 경우 PC 수요가 크게 감소한 데다 스마트폰 교체주기도 길어지면서 수요가 둔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최근 CXMT 등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저가판매 확대도 우리 저사양 반도체 수출 둔화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최근 반도체 수출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하였으나, 수출물량은 정체되었다. 비IT수출은 중국 등 주요 수출대상국의 수입 수요 부진이 영향을 미쳤다. 특히 석유화학, 철강 등에서는 중국 저가·과잉공급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IT 수출 가파른 증가 ↔
비IT 수출 완만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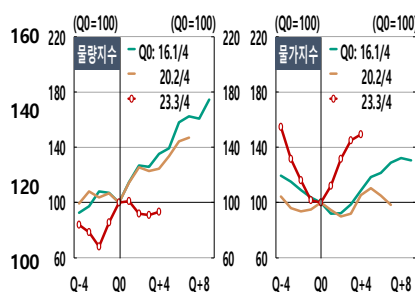
반도체 수출은 과거 회복기와 달리
물량은 정체, 가격은 가파르게 상승

비IT 수출은 대부분 품목 부진
지속, 자동차 3/4분기 크게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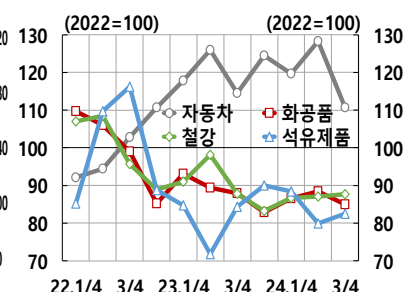
[그림 1] 수출 금액 : IT vs 비IT



[그림 2] 반도체 수출물량·물가



[그림 3] 품목별 통관수출



향후 우리 수출의 동인(動因) 점검

4. 아래에서는 각각의 동인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며 우리 수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짚어보고자 한다.

① 글로벌 IT산업의 미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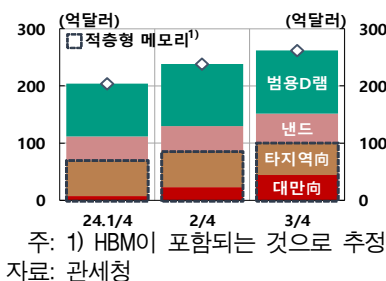
5. 앞으로 글로벌 반도체 산업은 고성능 제품 위주로 빠르게 재편될 것이며, 이에 따라 우리 반도체 수출도 증가할 전망이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AI인프라 투자 규모가 내년에 더욱 확대되면서 AI가속기, 서버 등 고성능 반도체가 장착되는 제품 출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PC·모바일 등 IT기기 수요는 더디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 기업들이 최근 DDR4 생산비중을 크게 줄여나가고 있어, 저성능 반도체 부진 영향은 갈수록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6. AI기능이 PC·스마트폰 등 IT기기 자체 탑재(On Device AI)로 확산될 경우 우리 반도체 수출에 상방압력이 나타날 것이다. 금년 들어 AI관련 기능이 탑재된 사용자 기기(PC·스마트폰 등) 판매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이는 최근 IT기기 수요가 더디게 회복되고 있는 주된 원인중 하나이다. 그러나 내년부터 AI에이전트(agent) 같은 신규 서비스가 출범하고 관련 기능이 내재된 IT기기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 우리 수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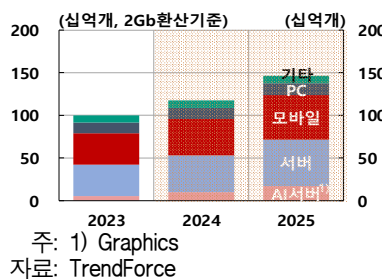
7. 중국의 반도체 기술추격 및 점유율 확대는 우리 수출에 있어 가장 큰 위협요인이다. 최근 중국 반도체 업체들은 정부의 막대한 재정지원에 힘입어 약진(1)하고 있으며, 특히 범용 반도체를 중심으로 자급률을 높여가고 있다. 중국의 반도체는 아직은 주로 내수용으로 소비되고 있고, 우리 주력제품보다 기술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지원에 힘입은 막대한 투자, 거대한 내수시장, 그리고 기업들의 적극적인 인재유치 등을 감안할 때 우리와의 경쟁이 나날이 치열해질 것이다.

HBM 올해 반도체 수출 증가 견인 PC·모바일 수요 더디게 회복 중국 D램 생산은 빠르게 증가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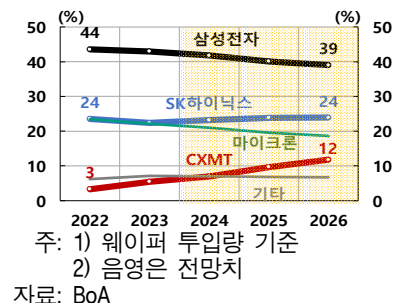
[그림 4] 메모리반도체 통관수출



[그림 5] 수요부문별 D램 생산 전망



[그림 6] 업체별 D램 생산능력¹⁾ 전망²⁾



1) 중국은 2025년까지 반도체 국산화율 70%를 달성한다는 계획에 따라 지금까지 1조위안(약 200조원)의 재정을 투입하였다. 금년 5월에는 반도체 국산화를 핵심으로 하는 3기 '중국 반도체산업 발전기금'(자본금 0.34조위안, 한화 약 64조원)을 발표하였다.

② 우리 수출에서 중국의 역할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8.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이후 우리와 GVC상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한 가장 큰 수출시장이자 흑자대상국이었으나, 최근에는 경쟁자로 변모하였다. 우선 중국 내부에서는 내수 중심의 성장전략²⁾과 기술력 향상에 힘입어 자급률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또한 중국이 일대일로 정책을 통해 ‘홍색 공급망’^{현지공장 설립 등}을 ASEAN, 남미 국가들로 확장해 나가고 있어, 중국의 對한국 수입의존도는 갈수록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국의 對세계 중간재 수입^{2017~2023년 기준}이 연평균 5.2% 증가한 반면 對한국 수입은 1.6% 증가하는 데 그쳤다.

9. 중국은 반도체·전기차·배터리·태양광 등 첨단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하고 있어 중국 내수시장뿐 아니라 세계시장에서도 우리와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중국은 적극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이자 전통적인 중간재인 철강, 정유, 화학 등에서는 이미 자국을 넘어 세계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³⁾ 또한 반도체 외에도 ‘신3양’^{新三樣}⁴⁾ 전기차·배터리·태양광 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하고 있어 우리와의 경쟁이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주요국과의 통상마찰에 대응한 핵심 과학기술 자립 노력^{중국제조 2025’, ‘신형거국체제’ 정책 등의 결과} 최근 중국 첨단제조 잠재력은 세계 최고 수준⁵⁾으로 평가받고 있다. 중국의 기술발전으로 우리의 對중 중간재 수입도 크게 증가하면서^{17~23년 평균 증가율: 8.7%} 2023년부터는 對중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섰다. 특히 최근에는 우리나라도 내수 둔화에 중국산 저가 철강·화학제품 수입물량 확대가 겹치며 관련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⁶⁾

10. 이에 더해 미국의 對중 기술제재가 중국의 첨단기술 발전 노력을 강화하는 자극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첨단장비 수입통제, 고율관세 등의 제재가 단기적으로 중국 기업들의 제조능력 향상을 지연시키겠지만, 역설적으로 기술자립에 대한 자극제로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중국의 기술·혁신 생태계 발전이 가속화되는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⁷⁾

2) 대표적으로는 ‘쌍순환 전략’(2020년), 2035년까지 ‘내수시장 확대 전략’(2022년) 등을 발표한 바 있다.

3) 중국은 막대한 산업보조금 지급(2019년 기준 GDP의 1.73% 이상, 미국 국제전략연구소 추정)을 통해 자국 산업의 자급률과 글로벌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기존에 중국 수출을 주도해오던 노3양(老三樣, 의류·가전·가구)을 대체하는 신3대 주력 수출품목으로,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으로 구성되어 있다.

5)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가 발표한 ‘20년간 핵심기술 추적지표’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5년간 64개 항목 중 첨단 데이터 분석, 위성 위치추적, 레이더, 드론 등 57개 부문에서 연구성과 1위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6) 철강업계에서는 포스코가 포항제철소 1제강공장^{7월}에 이어 1선재공장^{11.19일}을 폐쇄하였다. 현대제철은 중국 업체들의 저가 후판 수출을 반덤핑 행위로 정부에 제소^{7.31일}하였으며, 현재 포항2공장 가동을 중단 중이다. 석유화학의 경우 주요기업들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일부 기업의 위기설이 불거지는 가운데 정부가 산업 재편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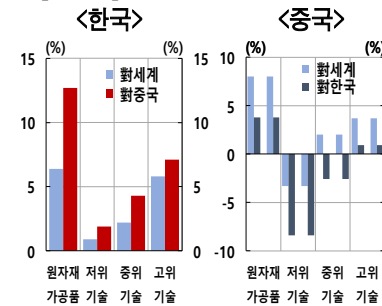
7) 일각에서는 중국이 기초 하드웨어에서부터 운영 체제, 데이터베이스, 애플리케이션까지 완전한 국내 기술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Plenum China, 2024.10.21일)

中, 한국과 중간재 조달 증가, 韓, 중국 중간재 수입 의존 심화

중국 전통산업의 글로벌 수출시장 점유율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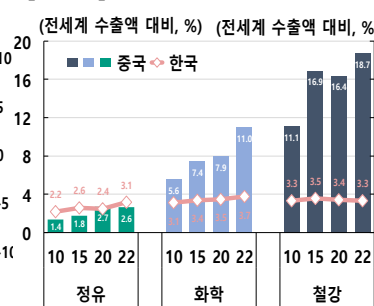
중국 기업들은 글로벌 주요 첨단산업의 주축으로 부상

[그림 6] 기술수준별 중간재 수입¹⁾



주: 1) 2017~2023년 연평균
자료: 한국무역협회, UN comtrade

[그림 7] 전통산업의 글로벌 점유율¹⁾



주: 1) 전세계 수출액 대비
자료: UN comtrade

[표 1] 첨단산업 기업 글로벌 순위¹⁾

순위	기업명	전기차 ²⁾	배터리 ²⁾	태양광 ³⁾
1	BYD	CATL	Jinko Solar	
2	TESLA	BYD	JA solar	
3	Geely	LG에너지	Trina Solar	
4	Volkswagen	CALB	Longi Solar	
5	SAIC	SK ON	Tongwei Solar	
6	Changan	PANASONIC	Astronergy	
7	현대·기아	삼성 SDI	Canadian Solar	
8	BMW	GOTION	(공통8위) CGL	
9	Stellantis	EVE	DAS solar	
10	LiAuto	SUNWODA	Risen Energy	

주: 1) 적색: 중국, 청색: 한국
2) 24.1~9월 기준 3) 24.상반 기준
자료: SNE리서치, PV infolink

③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의 영향은?

11.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무역장벽 강화^{통상}, 감세·규제완화^{재정·산업}, 고립주의^{외교} 등을 골자로 하는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속도감 있게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① 對중 고율관세 부과와 ②주요 對미 무역흑자 국가들에 대한 통상압력 강화는 우리 수출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12. 먼저 미국이 중국에 고율관세를 부과하거나 對중 제재를 강화할 경우 우리의 對중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첨단기술과 자국내 시장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막기 위해 이미 AI칩, 반도체 제조장비 등의 對중 수출을 규제하고 있으며, 중국산 배터리, 전기차 등에 대해 부과하던 관세를 올해 추가로 인상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고율관세 부과 등 제재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더욱 강력한 對중 제재를 실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중국의 對미 수출이 둔화되고 내수부진이 심화된다면 우리의 對중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

13.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수출에 반사이익이 나타날 수도 있다. 미국의 對중 제재 대상이 우리와 경쟁 관계인 전기차·배터리·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집중되어 있어 중국의 기술발전 속도가 늦춰지고 중국 제품들의 미국내 가격경쟁력이 약화된다면, 美우방국들을 중심으로 우리 제품들이 중국산을 대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4. 최근 우리의 對미 무역수지 규모를 고려하면 우리에게 대한 통상압력도 커질 가능성이 높다. 과거에도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우리나라에 대해 세이프가드 발동^{18년}, 세탁기·철강제품 관세 부과^{18년}, FTA재협상 요구^{17년} 등 통상압력을 가한 경험이 있다. 최근 우리 對미 무역흑자는 2023년 444억달러를 기록하였고 금년에도 500억달러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미국의 통상압력이 과거보다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만일 우리나라에도 보편관세가 부과될 경우 자동차, 기계 등의 수출이 미국 업체와의 경쟁 심화 등으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망 및 시사점

15. 향후 우리 수출은 글로벌 AI투자 지속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겠지만 중국의 대내외 시장점유율 확대 및 기술경쟁력 제고,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로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구조적 수출제약 요인들은 단기간에 사라지기보다는 장기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속적인 수출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역량을 모아야 하며, 이 중에서도 인재확보가 최우선 과제이다. 특히 반도체 등 AI 핵심기술 분야에서는 국가간 경쟁이 나날이 치열해지고 국가전략산업의 성격이 커지고 있어 지원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제조업 위주의 산업전략에서 탈피하여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통상압력 완화 및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외교·통상 분야에서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예컨대 원유, 가스, 농축산물 등의 수입선을 미국으로 대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미국의 對중 첨단기술 제재는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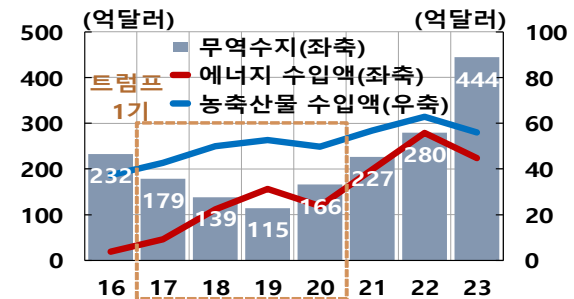
[표 2] 미국 금년 對중 규제 조치

시기	내용
24.1월	▶ ASML에 DUV 對중 수출 중단 요구
4월	▶ 對중 범용 반도체 추가 제재 방안 검토
5월	▶ 전기차배터리태양광반도체 등 기존 對중 관세 대폭 인상 ▶ 인텔·퀄컴의 화웨이 반도체 수출 면허 취소
6월	▶ 對중 차세대 반도체 기술 통제 검토
8월	▶ HBM 對중 수출 규제 논의
11월	▶ TSMC 반도체 7nm 이하 對중 판매 중단 요구

자료: 기사 종합

트럼프 1기 당시 對미 에너지 수입 증가와 함께 무역수지는 축소

[그림 8] 對미 에너지·농축산물 수입액 및 무역수지 추이



자료: 관세청